

# 광주·전남 8월 물가 상승세 반짝 둔화

### 7월 절반 수준 1%대 상승 그쳐 SKT 해킹 요금인하 등 일시 효과 한은 "9월부터 다시 2%대 전망"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소 상승폭이지만, 이번 물가 상승세 둔화는 여름철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요금 인하 등에 기댄 일시적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6으로 전년 동월(114.95) 대비 1.4% 상승했다.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코로나19 여파 및 고물가 양상이 점차 안정되면서 2023년 3%대, 2024년 2%대 상승폭을 보인 뒤, 올해 들어 3월 1.9%를 시작으로 상승폭을 좁혀가고 있다.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1.0% 상승하는데 그쳤고,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 물가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는 1년새 4.0% 올랐지만, 식품 외 물가가 0.7% 하락한 결과다.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5.2% 올랐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가 11.8%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신선채소(3.6%), 신선과실(2.7%)도 모두 물가가 뛰었다.

이처럼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대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낮았던 것은 SK텔레콤의 요금 인하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비주류음료(0.62%) 등 10개 항목이 상승했고, 통신(-0.59%) 등 2개 항목이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에서 휴대전화료(-21.0%)의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5.34에서 117.16으로 1.6% 올랐다. 전남 8월 중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1.2% 상승했는데, 지난 7월(2.4%) 상승폭의 절반 수준이다.

전남 역시 소비자물가는 휴대전화료(-21.0%) 등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밖에 휘발유(-2.5%) 등 유가 하락세와 정부의 여름철 전력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하락한 전기료(-0.4%) 등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축소를 견인했다.

한편 금융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9월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 하락 요인이 사라지면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에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가 1%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일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의 큰 폭 상승에도 당초 예상대로 통신 요금 일시 할인으로 오름폭이 7월(2.1%)보다 0.4%포인트(p)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루셀금고 X 김지희 작가'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이벤트를 팝업스토어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고객에게 선일금고 루셀과 김지희 작가가 협업해 만든 다양한 예술 금고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4일까지 '루셀금고 X 김지희 작가'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상품별로 25~30% 할인 혜택과 김지희 작가전 모델 추가 5% 할인, 소형금고 중 정 프로모션 등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5~7일에는 구매 금액대별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중기부, 내년예산 16.8조 편성...AI·소상공인 지원 집중

### 올해보다 10.5% 늘어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6조 844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집중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항목별로 ▲창업·벤처 혁신(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7464억원) ▲소상공인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조3175억원) ▲동반성장 생태계(5725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별로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

하고 절반을 AI·딥테크 투자에 배정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재도전 펀드'도 두 배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320억원을 투입해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 50여개 혁신기업을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운다. 또 10대 신산업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확대해 746개사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 1955억원으로 45% 증가했다.

특히 AI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84.9% 늘어난 4366억원이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도 99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수출 지원으로는 '수출바우처'(1502억원), 'K-뷰티 클러스터 육성'(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에 5790억원을 배정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명에 연간 최대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이 중 디지털 상품권 비중을 4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 예산에서는 '지역창업 페스티벌' 신설(36억원),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연구·개발(R&D)(266억원),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969억원) 등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 중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201억원을 편성했다. /김해나 기자 khn@

## 외출복으로도 인기

### 편안한 소재 라운지 웨어

### 광주신세계서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는 "집에서 입는 홈웨어 종류로 여겨지던 라운지 웨어가 편안한 외출복으로 활용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라운지 웨어를 선보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라운지 웨어는 가벼운 소재를 활용한 실내복이지만, 스타일리쉬하면서도 편안하다는 특징을 지녀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 이어 9월 초에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라운지 웨어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신세계 플래이 스퀘에 있는 '세컨스킨' 매장에서는 '모달 끈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제품은 가벼운 원단에 우수한 신축성을 가졌으며, 셔츠 등을 더해 외출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본관 5층 '코데즈 컴바인' 매장에서는 '별론소매



스트랩 원피스'가 주목받고 있다. 원피스는 차콜, 블랙, 베이지 컬러로 출시됐으며,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웨어를 만날 수 있다. 랩은 가성비 높은 라운지 웨어 상품들로 20~30대 여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게 광주신세계측의 설명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자녀 체크카드 만들면 용돈 준다

### 11월까지 '아이Wa나 이벤트'

광주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아이Wa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아이Wa나 이벤트는 광주W뱅크앱에서 제공하는 아이Wa계좌 개설 및 아이Wa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부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자녀 계좌에 현금 5000원, 만 12세 이상 자녀가 체크카드 발급 이후 1만원 이상 사용하면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선착순 2000화 한정으로 혜택이 제공되며 참여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응모된다. 경품은 지급일 기준 자녀가 정상적으로 계좌를 유지하고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을 동의한 경우 매일 10일 자녀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W뱅크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석현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며 올바른 금융 습관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해외직구 과자 등서 마약류 성분 첫 검출

### 식약처 50개 중 42개서 확인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구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

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타민,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타민),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을 확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공정위, '스드메' 거짓 광고 10개 업체 적발

### 직원 동원 SNS 허위 후기도

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개 대행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다이어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배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클라우드·위네트웍 등 6개사에는

경고 처분을 각각 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대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웨딩박람회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대 관람" 등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행사가 더 우월하다고 거짓·과장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기반 광고도 적발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증시 박스권 갇히자...투자자 시선 해외증시로

### 8월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

지난달 국내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해외 증시로 쏠리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2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한국거래소가 15조4000억원, 넥스트레이드가 7조2000억원이었다. 지난 7월 27조7000억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반면 해외 주식 결제금액은 늘었다. 지난달 해외 주식 결제액은 504억2000만 달러(약 70조2800억원)로, 7월 500억5000만 달러 대비 3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투자자의 관심이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뉴욕 증시는 호황을 보이는 반면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8월 한 달 59.43포인트(-1.03%) 하락했고, 코스닥도 8.33포인트(-

1.03%) 내렸다.

반면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우상향했다. S&P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6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내 증시의 답답한 흐름은 이번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9월은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계절인데다 코스피 전체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다. 다만 상반 추가 개정 등을 통해 반등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증권가는 내다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72.35 (+29.42)
↑ 코스닥	794.00 (+9.00)
↑ 금리(국고채 3년)	2.450 (+0.015)
↓ 환율(US D)	1393.35 (-0.35)
	(오후 4시 38분 기준)